

호매칼럼



김 명 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뭘 해도 가는 시간이 아까운 계절이 봄이다. 시골에 사는 남산 맥은 봄이면 들과 산에 나오는 나물을 뜯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오늘도 바구니와 칼 하나를 들고 산에 오른다. 뒷산 언덕에 지천인 썩도 캐야 하고, 옛그재 물 머금고 자란 두릅도 따야 하며, 산천에 가득 솟아난 치 나물, 머위를 뜯다 보면 하루해가 짝짝 넘어간다.

남산 맥은 4월 4일 이른 새벽에 뒷산에 올라 미리 나온 두릅을 따왔다. 그리고 10시쯤에 옷을 잘갈라 입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헌법재판소 법관이 대통령 탄핵 발표를 하는 날이다. 산골에 사는 남산 맥도 요즘은 정치판에 관심이 많다.

예로부터 왕이 일을 잘해야 백성들이 잘 산다는 말을 들었는데, 대통령의 계엄은 자다가 놀라 100일 동안 밥잠을 설쳤다.

남산 맥이 마을 회관에 도착하자

마을 어른들도 모두 나와 있다. 시간이 되자 텔레비전을 보며 대법관의 선고문을 경청한다.

11시 22분이 넘어서자 여기저기 함성이 들린다. 탄핵이 되었다. 국민의 승리인 것이다. 탄핵 선고가 들은 할머니들이 한마디씩 한다. “워따때 이제야 진짜 봄이 왔네.” 그 말에 모두 손뼉을 치며 아까운 산나물로 밥을 비비고 참기름도 듬뿍 넣어 점심을 먹는다. 소어미를 주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남산 맥의 발걸음이 가볍다.

이유인즉, 서울에 사는 자식이 이제야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좋다. 남산 맥은 대통령 계엄 이후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서울에 사는 자녀가 대통령 탄핵을 위해 주말이면 광장에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지낸 지 벌써 100여일이 넘어간다. 부모는 추운데 왜 저기에 앉아 있는냐고 했지만, 서울에

고마운 일이제

사는 자녀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역사 앞에 죄인이 된다.” 하면서 현장 소식을 보내 주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길 바라며 남산 맥은 매일 기도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내린 날도 아스팔트 차가운 곳에 있다는 것이 속이 문드러졌지만 고맙기도 했다.

서울에 사는 자녀는 전화하면서 울었다. 남산 맥은 ‘먹고 살기 바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역사의 죄인’이라는 생각하면서 “고마운 일이제.” 하면서 마음속으로 자식을 응원하였다.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의 승리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에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인 문형배의 이야기는 의미 있게 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체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라는 말은 다음 대통령과 국회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계엄으로 대한민국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앞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이 어려운 과제를 잘 풀어가야 할 것이다.

울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남산 맥의 “고맙제”의 말속에 100여일 동안의 힘든 과정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월의 추위와 눈바람은 이겨낸 촛불의 힘은 서울 광화문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분 것이 다.

드디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봄이 왔다. 국민의 봄이 온 것이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광장에 나가지 못한 사람은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그 광장에 함께 했던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4월의 촛불의 힘은 잠시나마 죽어있던 경기도 살아났다.

K는 가족끼리 축하를 하자는 의견에 마트에서 고기를 사려고 오랜만에 줄을 섰다고 한다. 작은 주점을 하는 D도 그동안 손님이 없어서 올상이었는데 탄핵 날은 손님이 들어서 탄핵이 되어서 즐겁고 손님이 많아서 즐거운 날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쫄쫄 얼어붙었던 경기가 봄의 열기를 타고 환하게 꽃이 피었으면 한다.

남산 맥은 오늘도 바쁜 걸음을 재촉한다. 옛그재 내린 비로 속 자란 고사리도 뜯고, 웃자란 썩도 캐야 하며, 치 나물, 머위, 두릅도 따야 한다. 주말이 되어 벚꽃이 만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마을 사람들과 함께 꽃밭이라도 가려면 손이 빠진다. 오매, 저 빨간 주둥이에 립스틱 바르고 나온 진달래 지기 전에, 노란 개나리 처녀 연두 치마로 갈아입기 전에 봄날이 다녀와야 쓰겠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명의 봄’으로 그려내는 희망과 승리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25일 예술의전당서 이병욱의 열정·김태형의 감성, 봄의 선율로 피어나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4월 2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394회 정기연주회 ‘운명의 봄’을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예술감독 이병욱의 지휘로 낭만주의의 깊이 있는 정서, 고전주의의 정제된 서정성, 그리고

운명을 넘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강렬한 서사를 담은 세 작품으로 구성됐다. 운명과 맞서는 인간의 의지와 그 속에서 움트는 희망을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연주의 서막을 여는 슈만의 ‘만프레드 서곡’은 영국 낭만주의 시인 바

이런의 극시 ‘만프레드(Manfred)’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인간 내면의 갈등과 숙명을 선율로 형상화한다. 격정적인 음향과 긴장감 넘치는 화성을 통해 어둠을 지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서사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지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3번’은 고전주의 협주곡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특히 2악장에서 드러나는 서정적 아름다움과 섬세한 감성은 겨울을 지나 새봄의 여명을 맞이하는 듯한

정서를 담아낸다.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협연자로 나서, 모차르트 특유의 우아함과 내면의 깊이를 섬세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연주의 대미를 장식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은 ‘운명 교향곡’으로 잘 알려진 불멸의 명작이다. 제1악장은 거대한 도전과 맞서는 인간의 투쟁을 그려내며 이를 거쳐 제4악장에서 밝은 C장조로의 극적인 전환을 통해 마침내 승리를 선언한다. 절망을 희망으로 시련을 새로운 도약으로 승화시키는 이 작품은 ‘운명의 봄’이라는 부제의 의미를 가장 강렬하게 대변한다. /조선주 기자

여류작가 초대전 ‘춘몽, 봄의 꿈을 그리다’ 순천창작예술촌 3호, 오는 30일까지 총 22인 작품 전시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은 순천창작예술촌 3호 조강훈아트스튜디오에서 오는 30일까지 여류작가 초대전 ‘춘몽(春夢), 봄의 꿈을 그리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조강훈아트스튜디오의 첫 번째 기획전으로 여류작가들의 시선으로 담아낸 봄의 순간들을 한데 모아 선보인다. ‘춘몽’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듯, 봄이 선사하는 생명력과 희망, 그리고 꿈같이 다채로운 감정을 작품으로

담아냈으며 작가들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색채와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참여 작가는 서울 7인, 순천 7인, 여수 5인, 목포 3인으로 총 22명이다. 조강훈아트스튜디오의 조강훈 작가는 “이번 초대전을 통해 봄의 빛과 온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예술이 전하는 봄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황금박쥐상’ 제작 변건호 작가 기획전

함평군립미술관, 내달 25일까지 특별전 운영

함평군은 ‘황금박쥐상’을 제작한 변건호 작가의 조형물과 회화를 선보이는 ‘생명과 예술’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명의 탄생과 소멸, 혼돈과 질서 등 근원적 주제를 예술적으로 풀어

낸 변 작가의 작품은 함평군립미술관에서 8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시한다. 변 작가는 1948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홍익대 미술대학 금속조형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함평군의 의뢰로 황금박쥐상을 제작했다. 함평군이 지난 2008년 28억원을 들여 순금 162kg로 만든 가로 1.5m·높이 2.1m 크기의 황금박쥐상의 가격은 18년이 지난 현재 261억원으로 치솟았다.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상시 전시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변 작가의 조각

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시도한 회화작품도 함께 선보이며 확장된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다. 변 작가는 조형물을 촬영한 후 아크릴과 색연필, 금박 등을 덧입히는 기법을 활용해 생명의 순환과 우주의 질서를 평면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올오버 페인팅 기법과 다양한 재료 사용을 통해 생명의 의미를 더욱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함평=지대만 기자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                       |                           |                               |                          |
|-----------------------|---------------------------|-------------------------------|--------------------------|
| 발행·편집인 고계방            |                           | 주필 서길원                        | 편집국장 최춘의                 |
| 대표전화 (062)363-8800    |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                          |
| 사 장 실 (062) 363-0027  | 편 집 국 장 (062) 363-8800    | 정 · 경 부 (062) 362-6116        | 사 회 부 (062) 362-6226     |
| 광 고 국 (062) 363-0005  | 편 집 국(FAX) (062) 362-0078 | 문 체 부 (062) 362-6116          |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
|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                           |                               |                          |
| 인쇄처디벨로라 (031)466-1000 |                           |                               |                          |

구독료 한달 : 1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푸른 언론의 길을지향하는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견견 •TEL : (062) 363-8800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mamnews@hanmail.net](mailto:homamnews@hanmail.net)  
[homammaeil@naver.com](mailto:homammaeil@naver.com)

| 지 국 안 내          |                  |                     | 지 사 안 내             |                     |                     |
|------------------|------------------|---------------------|---------------------|---------------------|---------------------|
| 총 장.....223-4123 | 상 무.....381-5310 | 오 치.....261-9461    | 목 포...010-8718-1234 | 화 순...010-2430-5055 | 함 평...010-3616-4282 |
| 무 등.....224-4188 | 서 부.....661-0004 | 문 흥.....261-9462    | 순 천...010-9656-1383 | 영 광...010-9860-5489 | 영 암...010-4604-3742 |
| 동 부.....234-4235 | 송 암.....362-4102 | 일 곡.....573-3200    | 광 양...010-9656-1383 | 완 도...010-5066-4708 | 무 안...010-2050-0136 |
| 학 동.....225-0651 | 농 성.....362-4102 | 동 문.....525-8894    | 장 흥...010-9193-6322 | 장 흥...010-5665-8354 | 진 도...010-8525-4567 |
| 광 천.....374-2120 | 진 월.....671-7276 | 두 암.....266-1920    | 담 양...010-9067-4076 | 신 안...010-3610-9153 | 해 남...010-3471-6542 |
| 화 정.....374-3713 | 봉 선.....675-5530 | 천 단...010-9193-6322 | 국 성...010-5602-1785 | 강 진...010-3608-0472 | 광 산...010-7613-4320 |
| 금 호.....376-7153 | 중 양.....521-5640 | 신 창.....955-0451    | 구 레...010-8597-0053 | 장 성...010-3610-7824 | 고 흥...010-4644-8383 |
| 쌍 촌.....371-9584 | 중 흥.....433-1503 | 월 곡.....941-9174    | 보 성...010-3626-4776 |                     |                     |
|                  | 양 산.....574-3745 | 송 정...010-5524-3638 |                     |                     |                     |
|                  | 문 암.....521-4270 |                     |                     |                     |                     |